

##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화려한 말잔차... 예산 쓰기 위한 축제

〈독창성 부재〉

3일만에 3억2천800만원, 경북도 지원도 4천800만원 추가 영천시, "영천보현산에 ON 세상 별들의 축제 됐다"

제18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축제위원장 전민욱)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온라인축제로 끝 났었다.

당초 축제위원회는 온·오프로 병행해 개최하기로 했지만 2일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진정세가 꺾이지 않자 비대면으로 치룬다면에서도 보현산천문과학관 특설 무대를 설치해 화려한 개막식을 가졌다.

그러나 예산에 비해 축제평가는 의문이다. 2017년도에 2억9,800만원이던 보현산별빛축제 예산이 매년 증가해 올해는 3억원을 넘게 쏟아 부었다. 올해는 전면 온라인으로 치렀다. 경북도의 지원 우수축제에 산 4,800만원도 추가됐지만 평가는 영천시의 나홀로 자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영천시는 'ON 세상은 반짝일 권리가 있다, 넌 머선 ★29'라는 주제, "전국 어린이 별빛 골든벨", 국내 최정상 쇼파이어 그룹 "하모나이즈"로 높은 호응도로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몰랐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관람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 A씨(62세, 완산동)는 "별빛축제를 하는지도 몰랐다. 언제 했죠?"라며 반문했고, 또 다른 문화관계자 B씨(56세, 중앙동)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다고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홈페이지에 설문같은것과 축제 설명 뿐으로 기획력이 부족하고 온라인 운영 자체가 무성의해 허접하기 짝이 없어 아예 포기해 버렸



다"고 말한다.

실제 본지가 별빛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영천매니아 및 실시간방송 (zoom)의 팝업창이 뜨지만 내용이 축제에 대한 평면 안내가 고작이다. 또 유튜브와 축제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동시접속자는 20~40여명 뿐으로 5일 동안 누적 방문객 2,900명이 전부였다.

지역 한 언론인도 "축제장에 아예 가보지도 못했다"면서 '손에손잡고,

ON세상, 넌 머선 ★29, 가을밤 감동적 공연, 화려한 개막 등 영천시의 말잔차에 불과했다"면서 "예산을 쓰기위한 축제로 유명유튜브를 앞세운 인기에 순가락 엇기로 영천시의 독창력이 부족한 축제였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번 축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집콕 딜리버리 키트 체험이 신청 5일 만에 준비된 물량이 동남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며 어린

이들과 부모님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면서 10월말까지 축제 콘텐츠를 랜선 관람객들과 함께 즐긴 후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별빛축제가 일상의 작은 즐거움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축제에 참여해 주신 전국의 랜선 방문객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엔 꼭 축제 현장에서 뵙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 '위드(with) 코로나' 속도 붙나? 일상회복위원회 13일 출범

이달 들어 영천시에 62명(12일 현재, #234)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위드(with)코로나를 조심스럽게 수면위로 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받은 일상회복 기회가 턱밑에 와 있다는 의미다.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0월13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기 때문

이다. 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상회복에 필요한 단계와 소요 시간, 백신 패스 도입 등 체계 전환에 필요한 주요 방안을 결정하고, 이달 중 실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예코과학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장관 및 분야별 민간위원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행정대집행... 거대 쓰레기 산 누가 치우나 - 9면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봉송

전국체전 8일~14일(7일간)  
장애인체전 20일~25일

지난 4일 경북도청에서 출발식을 가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가 7일 영천시에서도 봉송됐다. 경북도는 7일 강성조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경산과 대구 경계에서 성화봉송식을 가졌다.

영천시는 이날 시청 정전에서 시장, 시의장, 교육장, 체육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화봉송식을 갖고, 시청 주차장에서 영동교 사거리까지 3개 구간을 나누어 각각 10명씩 총 30명의 주자들에게 성화



가 전달돼 봉송됐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는 8일~14일까지 7일간 경북 12개 시군 일원

에서,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일~25일까지 6일간 열리게 된다. 영천시에서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태권도 종목이 영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19로 고등부 경기만 축소 개최되는 등 2년 만에 열린다.

이번 대회 성화는 지난 3일 강화군 마니산(전국체육대회)과 구미시 금오산(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채화되어 경북도 내 대회 개최 12개 시군을 순회 봉송될 예정이며, 경주에서 전달된 성화는 7일 우리 시 구간 성화봉송을 거쳐 경산시로 인계된다.

# 수덕에식장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층  
80평 / 70평

70평 / 32평  
1층

# 임대

병·의원 1·3층  
특별우대 분할가능

1층 약국 / 2층 당안신내과  
영업중

"수덕출장뷔페 & 도시락" 사업은 계속합니다

문의 전화 **010-3809-7100**



# 영천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달 들어서만 벌써 62명

## 정부는 일상회복위원회 출범 '위드(with) 코로나' 준비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영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속지지도 않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62명째다.(12일 기준) 하루 평균 5명 꼴이다. 영천시는 지난 1일 #171번발 입고

면 한 자동차부품업체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지난 2일 한꺼번에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코로나 발생 이후 1일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일수도 적지 않다. 10월 2일 20명 확진 후 5일~7일 사이 사흘 연이어 5명씩 확진되면서 한때 영천시↔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확진이 많았다. 2일 입고 근로자 집단 감염과 관련해 외국인 확진자는 80%가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영천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에는 하양 M고등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 고등학생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자로 추가되면서 #173(입고 집단 감염) 확진자발 80

대 여성과 20대 여성 및 10개월짜리 영아(여)까지 감염되는 등 감염 경로가 집단화에서 보편화 성향을 나타내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12일 현재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다. 9일 4명에서 11일 1명, 12일 1명으로 다소 속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누계 확진자 234명을 기록했고, 또 12일 오후 기준 자가격리자는

144명, 검사 중 341명으로 확진자는 당분간 꾸준히 지속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3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켜 '위드(with) 코로나'를 준비 중이다. 이달 중 구체적 일상회복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기관경고·주의, 시정 무더기 처분 받아

## 승진 불가 직급 22개 승진시켜 경북도 지난 5월 영천시에 대한 감사결과 12일 공개

경북도가 지난 5월 실시한 올해 영천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12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천시는 모두 37건에 시정 19건, 주의 17건, 재정 조치 중 회수 3건 23,283만원, 감액 1건에 11,027만원, 추징 5건 90,228

만원 등 모두 45건이다. 영천시장학회와 영천시는 지정기탁금 접수 방법 및 운영 부적정과 보현산 별빛촌캠핑장과 관련해 각각 기관경고처분을 받았다.<별빛촌캠핑장 관련기사 4면>

또 총무과는 승진예정 직급조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8.1.부터 2021.3.26까지 19회에 걸쳐 147개의 직렬을 조정하면서 특정 직렬간 승진 형평성,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다는 이유로 승진할 수 없는 승진 예정 직급 22개를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천시장이 지정대리를 지정하면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지정하고 또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도 2019. 1. 1 지방서기관 3명, 2019. 7. 1 지방서기관 1명 등의 연수에 따른 결원에 사무

관 3명은 승진임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국·소장 직위에 각각 지정했으며, 또 5급이하 공무원에게 승진시 자격증 등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도 2018.1.1부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 3명에 각각 0.5점씩 가산점을 부과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령을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경북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영천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발급 및 직불금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법인

카드 관리소홀, 물품 입찰 실적제한 부적정,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위한 산지전용 신고수리 부적정, 위반 건축물 관리 부적정 등 37건에 대해 무더기 처분을 받았다.

특히 영천시는 관내 초·중학생 대상 2019.7.21. ~2019.8.12까지 여학연수 업체를 통해 해외 여학연수를 실시하면서 지방 주사보 A씨가 여행경비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으므로 A씨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등 적의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장지수 기자

#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커피트럭 나눔 봉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원장 추경훈)은 지난달 29일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커피트럭 나눔 봉사활동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장애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커피트럭을 이용한 음료나눔 봉사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부품소재산업 특화 전문연구기관이다. 2007년 설립해 기업기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또 연구원은 평소 설·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떡국 키트지원,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물품지원, 은누리 상품권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다.

추경훈 원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번 커피트럭을 통해 잠깐이나마 마음속의 여유를 찾게 되었다면 매우 기쁠 것 같다.”고 전했다.

# 국립영천호국원, 방문 인증샷 사진 공모전

## 10월 31일까지 카톡 전송 17점, 총상금 460만원 시상

국립영천호국원에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립영천호국원 알리기 인증샷 이벤트'와 '제4회 전국 사진 공모전'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안장유가족 및 보훈단체 등 방문객 감소로 국립묘지 방문 활성화와 방문객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호국원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이다.

참여 방법은 영천호국원을 방문하여 참배 및 봉사, 체험활동 등을 촬영한 사진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국립영천호국원 카카오톡 채널로 전송하면 된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전국 사진 공모전은 호국원의 자연경관 등을 소재로 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서 17점, 총상금 46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국립영천호국원 홈페이지(www.mpva.go.kr/ycnc/index.do) 또는 전화(☎054-330-0841~2)로 문의하면 된다.

### 特別寄稿



김유미 소설가

우리들이 화천대유게이트에 정신판리고, 국민의힘당이 경선에서 치고받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판에서 부정선거를 벌일 치밀한 전략을 이미 세웠다는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일일 감염자 1,500명이 방역 4단계였지만 일일 감염자 2,000명이 넘어도 여전히 방역 4단계였고, 일일 감염자 3,000명이 넘어도 여전히

감염자 3,000명 이상의 발표도 민심을 저울질 해보는 것이다. 국민들도 일일 감염자 3,000명 이상에 방역이 느슨하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마치 자영업자들을 위해 옥죄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현재 타이밍이 아니니까 밀고 당기기로 대선 전까지 끌고갈 뿐이다.

지금처럼 일일 감염자 숫자를 1,500~ 3,000명 정도로 밀고 당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제라는 것만 남았다.

2월 중순쯤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당연히 대선은 비대면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어느 누가 막아낼 수 있겠나. 야당 대통령 후보가 비대면투표는 안된다고 말하는 순간 겁먹은 국민들로부터 물매를 맞을 것이다. 선거를 보이콧 시킬만큼 강단있는 후보

장을 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나라면, 내가 더불어민주당 전략가라면, 정권을 내주면 목숨을 내놓을 형편이라면 하는 전제가 주어지면 나는 이런식으로라도 부정선거를 계획할 것이다.

부정선거의 개연성은 4.15부정선거에 기반을 두었다.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경험한 저들이라면 다음 선거에서의 부정선거는 당연한 것이다. 대선과 지자체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또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고려연방제의 걸림돌은 사실상 없다. 이미 국회를 장악한 주사과정권이 무슨 짓을 못하겠나.

이 글을 쓰는 저자도 이렇게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지만 나의 바램이 너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내 가슴은 요동친다. 야권의 대선 후보가 내 목소리에 귀를 열고 들어주기만을 바랄뿐이다.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을까.

## 김유미의 小說같은 大韓民國 (56)

문재인 정부가 방역 5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  
정부와 언론 손발 맞추면=>  
코로나 계엄령 문제 없어  
대선 비대면투표 수순...  
부정 전자투표 누가 막을 수 있나?  
내가 더불어 전략가라면=>  
목숨 대신 이런 부정선거 택하겠다.  
文 정권재창출하면...  
사실상 고려연방제 걸림돌 없어져

## 우리들이 한눈판 사이 부정선거 음모는 진행형

이 방역 4단계다. 감염자 숫자로는 이미 방역 5단계로 갔어야 하지만 방역 5단계가 불러올 폐단을 미리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방역 5단계가 되면 저녁 9시가 사실상 통행금지다. 비대면이 원칙이고 자영업은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타이밍상 방역 5단계는 너무 이른 것이다. 추석이후 일일

기를 하다가 2월중순 일일 감염자 숫자를 폭발적으로 늘일 것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방역 5단계를 발표해도 수급이 갈만큼의 일일 감염자를 만들고, 방역 5단계가 안 되면 국민들이 불안하도록 미리 언론이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 놓을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손발을 맞추면 방역 5단계로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을 만드는 것은

가 없다. 그래서 대선은 아주 자연스럽게 비대면투표, 즉 전자투표로 간다.

혹자는 내가 소설가라서 소설을 쓴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소설을 쓴다고 치부하는 자는 모두 좌익들이다. 어쩌면 이런 부정선거를 준비한 전략가에게는 나의 예측이 너무 들어맞아서 겁이 날 것이다. 자유진영에 어느 누구도 이런 주



< 예산 확보는 누가 했나? >

# 이만희 의원, 농축산부 공모 과실전문생산단지 49.2억원 확보



영천 ▲화남(죽곡지구) 총 사업비 14억5천만원(국비 11.6억원)  
청도 ▲원동지구(46ha)가 총 사업비 21.6억원(국비 17.2억원)  
청도 ▲운산지구(28ha)가 총 사업비 13.1억원(국비 10.5억원)

신청한 3개 지구 모두 공모사업에 선정된 쾌거다.

신규로 선정된 세 지구는 향후 2년간 총 49억원(국비 39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와 진입로 공사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향후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주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예산확대를 위해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영천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4억5천만원 국비 확보  
화남 죽곡지구 선정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농림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인 2022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화남 죽곡지구(31ha)가 선정되어 사업비 14억5천만원

을 확보했다고 10월1일 밝혔다. 영천은 2020년에 선정된 자양면 보현지구(46ha)·임고면 효지구(54ha)는 총사업비 32억원으로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이며, 2021년에 최대 규모로 선정된 화남면 안전지구(30ha)·고경면 용전지구(37ha)·북안면 북지구(30ha)는 총사업비 45억원으로 1년차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영천시는 이번에 2022년 화남면 죽곡지구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사업은 집단적으로 재배되는 과수 품목의 용수원 개발, 개별 과원에 용수공급시설 설치 등을 주요 사업

로 하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과수주산지인 영천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주력하여 고품질 과수생산으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을 육성하고,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청도군] 농림축산식품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개지구 선정  
2022~23년까지 과실생산기반구축 74ha, 35억 투입



청도군(군수 이승울)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운산지구, 원동지구 2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35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과수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 2018년부터 5

년 연속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운산과 원동의 2지구에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운산 28ha에 총13억원, 원동 46ha에 총 22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과실 주산단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시장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이승울 청도군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고품질의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서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 같아 매우 기쁘며,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청도군이 과수 산업 발전에 으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현재 남성현, 가마실, 덕암의 3개지구에 대하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구축 사업을 완료했으며, 쇠실지구(17억원 52ha, 2020~2021), 문수지구(10억원 30ha, 2020~2021), 내동지구(24억원 50ha, 2021~2022)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 헌혈 수급 비상...영천 농·축협 헌혈 캠페인

### 코로나19 장기화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수급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영천지역 농협과 농·축협 임직원들이 나눔문화 확산

을 위한 헌혈캠페인에 나섰다. 농협영천시지부(지부장 조상진)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부족현상을 극복하고 생명나눔 사회공헌 실천을 위해 영천지역 8개

농축협과 영천시지부, 영천중앙지점 임직원 약 50여명이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최근 개인과 단체헌혈이 줄고 있어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의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진 영천시지부장은 "헌혈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 기간

### AI 등 가축전염병 대비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영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구제역 야의 감염 항체 검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의 남하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매개체인 철새 도래 시기가 맞물려 어느 때보다 가축전염

병 발생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농업기술센터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농가 전담공무원(양돈 11명, 가금 28명)을 지정하여 축산농가 예방 및 방역 미흡시설 보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 등을 통한 AI 전파 차단을 위해 일제 휴업·소독의 날(월2회)을 운영하고, 가금농장 AI 검사 주기 단축(분기1회→월1회)과 출하 전 정밀검사 실시 및 이동승인서 발급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조 합 장	김진수	이 사	추종호	이 사	손종한	상임이사	이주원
수석이사	김병찬	이 사	이창훈	이 사	이해도	감 사	홍기윤
사외이사	유석권	이 사	류도희	이 사	김동환	감 사	권영환



## 영천축산업협동조합

본 점	333-1801~5
동부로지점	333-2801~2
영 남 지 점	331-7801~2
경제사업장 간이지점, TMF사료공장	332-1801
서 문 지 점	331-6551~2
한우프라자	336-1801~3



# 보현산 글램핑장 복마전... 결국 경북도가 본다

사고 3년만에 관련 공무원 무더기 감사처분 받아  
"영천시장 나와라... 나는 억울하게 범죄자 됐다."  
최기문 시장, C씨 면담 요구 피해... C씨 "1억2천 내 돈 달라"  
제3의 사건, 이제 사기 보험금 수령으로 불꽃 튀는다.

공무원과 운전자 및 사고피해자(추정) 등 책임 소재를 놓고 민·형사복마전으로 비화했던 영천시 보현산 별내림캠핑장 내 글램핑장 사건이 사건 3년 여만에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사건과 관련해 영천시에 대한 경상북도의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다.

경북도는 지난 5월 실시한 영천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12일 경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연히 해당 글램핑과 관련한 건설결과와 관광진흥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의 위법사항도 공개됐다.

감사결과 경북도는 글램핑장은 영천시가 농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농·수산물식품부 지원으로 국비(사업비) 31억4천700만 원을 들여 보현리 일원에 2016년 준공한 별내림캠핑장 내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공무원의 묵인, 공무원의 관리소홀, 위장 출장 및 출장시간 허위 보고,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의 의무위반,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미이행, 캠핑장 사용료 불법징수 등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 영천시는 기관경고와 주의 및 시정조치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

결론은 처음부터 불법 글램핑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공무원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감사결과다. 여기서 지

난 2018년 7월 28일 관광객이 "배수로에 빠져 다쳤다"며 영천시와 운영자를 상대로 안전사고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를 위한 복마전으로 비화한 사건이다.

사고 당시, 글램핑의 실제 운영자는 C씨, 영천시로부터 글램핑을 위탁받은 책임 당사자 은하수권역위원회 위원장 A씨, A씨로부터 위원장 자리를 넘겨받은 두 번째 위원장 B씨, 글램핑장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온 사무장 K씨 사이에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처신이 결국 이같은 사태를 맞았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담당과 주무관 및 과장 등 4명이 관련됐다.

결과는 K씨가 주민(위원 중 출자자)들로부터 글램핑 1동당 1,500만 원을 받아 1억5천만원으로 불법 글램핑을 설치해 자신이 5동 나머지 1동씩은 주민이 각각 소유해 불법 숙박영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운영이 좋지 않자 K씨는 영천시의회에 "영천시가 글램핑을 영천시 소유시설로 매입해 주기를 요청했고, 영천시는 매입 불가를 확인했다.

이러는 사이 K씨 주도로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최초 위원장이던 A씨에서 B씨로 자격을 넘겼고 또 연이어 C씨에게 위원장자격을 넘기면서 C씨가 글램핑(10동)을 인수하기로 한 것. 그러나 결국 영천시는 그동



12일 시장실 입구에 앉아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C씨

안 위원장이 변경된 것을 몰랐다면 외면하고 C씨와 B씨의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천시가 필요할 때는 다시 B씨에게 위원장 자격을 인준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는 사이 2018년 7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가 나자 다급한 나머지 영천시는 관광진흥법 등에 무등록 시설이라며 법적 자격이 없는 C씨로부터 자인서를 받아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고발해 C씨는 현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있다. 영천시가 무등록 야영장 등록요건 안내는 K씨에게 보내고 C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경우다.

### ■ 보험금 수령 법적 타당성 있나

또한 K씨가 주도적으로 사고피해자와 함께 보험금 1천만원을 타냈다. 물론 피보험자는 최초 은하수권역운영위원장 A씨 명의 보험이다. 그런데 C씨 영업장에서 사고가 난 것을 C씨 몰래 A씨의 보험을 B씨가 확인서를 써주고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모두 K씨가 그 가운

데 있다.

K씨가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건설과 이 모 담당이 B씨를 찾아가 은하수권역운영위원장 자격을 부여하면서다. 사고 일자는 7월 28일, 공무원이 B씨를 운영위원장으로 부여해준 일자는 9월15일, 그 확인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일자는 위원장 변경 이틀뒤인 9월17일, 그리고 영천시가 다시 B씨를 위원장에서 해지(은하수권역 위수탁 해지) 일자는 9월30일이다.

실제 A씨의 피보험자격을 K씨가 공무원 이 모씨와 도모해 B씨를 운영위원장으로 만들고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C씨는 까마득하게 몰랐다.

앞서 A씨는 보험금 신청 3개월 전인 6월5일 사업자등록을 말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피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한다. "누가 보험금 신청서에 은하수권역위원장 도장을 찍었는지 K씨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C씨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금이 수령돼 현재 C씨가 삼성화

재보험을 상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사기보험금수령'으로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12일 영천시장 사무실 앞에서 C씨는 "영천시장 나와라...건설과는 내 돈 내나라"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최기문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C씨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나를 범죄자 만들었는데 그 공무원들을 모두 승진시켰다. 영천시장 물러나라" 등을 외쳤다. C씨가 요구하는 '내 돈'의 금액은 1억2천만원이다. 최 시장은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 나가야 하지만 1시간여 동안 시장실 내에 갇혀 있다가 총무과장의 도움을 받아 겨우 빠져나갔다.

앞서 C씨는 "나는 억울하게 범죄자가 됐다. 경북도 감사결과와 각종 소송에서 공무원의 허위조작으로 억울하게 법적책임을 덮어쓰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됐다"면서 최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C씨의 면담요구는 2019년 초부터 지금까지 청사앞에서 매일 펼쳐왔지만 최 시장은 단 한번도 C씨를 만나주지 않았다.

최근 C씨는 K씨가 주장하는 관광객 사고피해자도 가짜 피해자로 보고 있다. 119 출동결과, 사고지점까지 거리가 32km인데 19km로 기록돼 있고, 또 당시 현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영천시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 피해자가 당일 119에 탑승한 장소가 사고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일반 지방도라는 점, 또 실제 환자의 이름이 다른 점 등을 들어 영천시가 보관하고 있는 CCTV 서버 포렌식을 요구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 기자수첩



김효정 기자

및 매국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9월28일 대구 북구청(건축과) 허가로 사방으로 가정집 11개가 둘러싸인 이곳에 이슬람사원이 공청회와 주민동의도 없이 건축되고 있다. 특히 종교시설이어서

에 시달리는 등 주민불편을 겪을 수 없어 결국 북구청의 허가를 규탄해 지난 2월부터 일시적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무슬림과 이슬람 건축주가 법원에 '공사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들을

입고 주민들에게 눈을 흘기거나 어깨를 건드리거나 심지어 집을 팔라고까지 하며 위협까지 가한다. 더군다나 주민들의 현수막에 국가인권위까지 나서서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주민들이 아닌

도 주지 않았다. 사실상 주민동의는 법적 허가절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한 집 한 집 찾아가 공사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법원까지 기망했다. 심지어 주민들이 사원 주변의 쓰레기를 스스로 모으고 정리하는 장면을 오히려 "주민들이 사원 주변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다"며 KBS에 제보해 방영되는 적반하장격으로 모함한 사례도 서슴치 않은 무슬림이다.

대현동에서 거주하고 지금까지 한 평생을 생활터전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한 주민들은 누가 지켜주며 타국인에 의해 어디로 내몰리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아프다. 그 다음은 어느 곳에서 누가 타깃이 될지 알 수 없다.

대현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에 도전하는 가짜인권 앞세운 이슬람 지지세력과 인권위 그리고 D이슬람센터,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변호사모임대구지부 등이 오히려 대현동 주민들을 공격하면서다.

이슬람의 무슬림 위해 자국민을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 주민은 과연 누가 지키지 북구청과 국가인권위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 무슬림 위해 자국민 공격하는 인권위와 대구 북구청... 누가 주민 지키나!

### 생존권 지키려는 대구대현동 주민 인권침해, 혐오세력 매도한 불순·매국 시민단체 주민동의 없는 주택가 한복판 이슬람사원 건축 결사 반대 가짜인권 앞세운 매국행위- 박충환·강우진 교수는 즉각 멈춰라! 대구지법 차경환 판사- 불순 시민단체 배제하고, 공정재판 하라!

국가 인권위와 대구 북구청(건축과)에 의해 대구 북구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오히려 혐오세력으로 매도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상호주의' 배척 이슬람 위해 차경환 판사와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등이 오히려 대현동 주민들을 공격하면서다.

지난 9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대구지방법원(범어동)앞에서 대구 대현동 주민 40여명과 '국민주권행동' 등 39개 단체가 동내 한복판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며 '주택가 모스크 공정재판 촉구

일반 건축허가와와는 성격이 다르다. 반드시 공청회는 거쳐야 한다.

무슬림은 \*1)'상호주의'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무슬람인권 탄압, 이교도 생명살상을 일삼는 집단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소음에 시달리고 냄새와 청소상태로 인해 불편을 겪었지만 이들의 종교활동에 민원 한 번 넣지 않고 꺾꽂 참아왔다.

<상호주의=국가간 등가(等價)인 것을 상호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 국가간 상호주의는 기본 원리의 하나다>

하지만 사원까지 건축(중측)해 주택가 한 복판에서 40일간의 라마단 금식기간 동안 밤 늦게 소음

지원하는 불순 세력이 등장해 주민들을 오히려 혐오세력으로 매도해 적반하장격 공격을 해오면서 누가 주민들을 지키것인지에 의문을 갖게됐다.

때문에 이슬람 지원세력들과 대치해 주민들은 국민주권행동 단체의 도움으로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을 지속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 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5개 인권시민 단체 그리고 일부 언론사들이 앞장서 대현동 주민에게 인권침해, 혐오, 종교의 자유침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프레임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무슬림은 이들 세력들의 힘을

이슬람의 손을 들어주며 북구청의 공사중지가 탄압이라 주장한다.

결국 9월28~29일 양일간 대구지방법원앞 무슬림 규탄집회에서 주민편에 선 국민주권행동 외 39개 단체와 이슬람편에 선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5개 대구 인권시민단체는 상호 극한 대치국면이고, 지난 5일 대구 북구청이 "국가인권위의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 및 혐오 차별 현수막 철거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평을 내놓으면서 무슬림 위해 자국민 공격하는 형국에 처해있어 우려스럽다.

「지금까지 주민들에 어떤 피해



# 경북도, 곤충산업 육성지원 2년 연속 공모 선정 '쾌거'

총사업비 22억 4,000만원 확보  
곤충산업 지역별 거점화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내년도 곤충산업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곤충산업화지원', '곤충유통사업지원' 2개 분야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사진)은 "이



번 공모사업은 9월 전국 지자체 공모신청 후 현장실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에서는 예천양잠농업협동조합(예천), 느림보곤충나라(문경), 곤충유통사업지

원은 경북잠사곤충사업장(상주)이 각각 선정

돼 총사업비 22억 4,000만원(국비 7억 2,000만

원, 지방비 9억 2,000만원, 기타 6억원)으로 곤충·양잠분야의 생산·가공·유통체계 고도화 및 유통 활성화에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북도는 지역별 특화된 곤충종의 생산 및 가공·유통을 각각 전담할 협력·거점농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R&D, 교육,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은 물론, 경북의 '곤충산업 지역별 거점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곤충산업화지원', '곤충유통사업지원' 2개 분야 동시 선정으로 곤충원료 전처리·1차가공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곤충산업은 식용곤충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이번 사업 선정은 경북이 곤충산업 핵심거점으로 한발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 문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변화 서막 연다

구, 쌍용양회 부지 40MW규모  
수소연료전지발전 착수  
문경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탄생

경상북도는 13일 문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구(구)쌍용양회 부지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윤환 문경시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지역 도의원, 시의원, 윤테일 주민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구(구)쌍용양회 부지(1만 5,000㎡)에 40MW규모로 조성돼 20년간 운영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약 9만 세대 전력 공급과 1673세대에도

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전소 운영에 따른 350억 원의 세수 확보와 발전소 인근 지역지원금 57억 원도 지원된다.

문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UNKRA 산업유산인 구(구)쌍용양회 문경공장을 활용한 최초의 시도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3,532억 원을 투입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그린에너지 플랫폼 기반조성, 스포츠융복합테마시설, 월드힐링센터 등을 조성하고 직·간접적인 일자리 3880개가 창출 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소산업 선점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북에 이번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산업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최초로 시도 되는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문경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 이철우 도지사, 첫 농가 벼베기 시범에 구슬땀

문경 울곡리 농가 찾아 농업인 격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 문경 영순면 울곡리 농가를 찾아 콤바인에 직접 탑승해 벼 베기 시범으로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작업에는 고윤환 문경시장, 도의원,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벼 베기를 농지의 소유자인 홍의식(56세)씨는 쌀 농업인을 대표하는 한국쌀전업농 경북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홍의식 농가는 벼와 논콩 재배면적이 50ha에 달하는 대농가로 벼 베기를 한 농지는 지난 5월 15일 '일품벼'를 모내기한 후 150일 만에

수확하게 됐다. \*일품벼 : 1991년 국내육성품종, 찰기가 있어 밥맛이 좋음. 경북 벼 재배면적 55%

한편, 올해 경북도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9만 7,255ha보다 1.5% 줄어든 9만 5,830ha로 집계됐다.

생산량은 분얼기(가지치는 시기)에 적정한 기온과 강수로 이삭수가 증가하고, 유수 형성기(날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기상여건이 좋아 지난해 49만 5,055t보다 3.7% 증가한 51만 3,212t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쌀은 고급화하고 밀과 콩 등은 생산을 늘려 식량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둔 도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 청도군,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선정

국·도비 3억 5천만원 확보

경북 청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억 5천만원(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12일 이같이 밝히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농산물의 과잉 생산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한 품목 출하 조절을 위

한 저온저장시설과 유통과정 중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저온 수송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농가와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이번 공모사업은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을 신청한 새청도농업협동조합이 선정됐다.

## 청도예술제-지역 예술인 화합장 만든다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청도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6회 청도예술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예총 청도지회(지회장 손만식)가 주관한 이번 예술제는 당초 청도읍성 야외 무대에서 개최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군민의 안전을 고려해 무관중,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날 예술제는 국악, 음악, 연예, 연극, 사진 협회를 비롯 차산농악단, 온누리국악예술단, 싱그린어린이합창단 등이 청도 예술인만의 특색있는 공연과 전시로 지역 예술인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역량을 군민들에게 선보이는 기회로 삼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



기를 보내는 지역의 예술인에게 군민이 응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니 성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경북 우수 농특산물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  
회원가입시  
경북의 생과일주스  
5,000원 쿠폰 증정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5,000원 쿠폰)  
쿠폰발행기간 10. 1~10. 31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는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 경북 지역의 우수 농산물도 같이 쇼핑하세요.



Angel-in-us.



# 공부하는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역량강화 특강

### 조영제 의장, "시민 권익 향상 위한 행정사무감사 하겠다"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가 지방의정연구소 교수를 초빙해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역량강화 수업을 실시했다.

의회는 5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조영제 의장을 비롯해 이갑균·우애자·최순례·서정구 의원 등 직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교수를 초빙해 1년간 집행기관이 해온 일을 되돌아보고 문제 해결

에 대한 특강을 받았다.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전략 △감사대상 분석방법 △감사실시 △행정, 회계 및 재정, 계약분야 등 사례연구와 항목별 구체적 이론이다.

조영제 의장은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도 나날이 다변화, 전문화되고 있다."며, "영천시의회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 영재선발 위한 영재 판별 교사 연수



### 영천교육지원청 교사 관찰·추천제

영천교육청이 지역 아동의 영재성을 판별하기 위한 교사들의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영재성을 관찰해 추천하는 제도다.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영)은 지난 1일 영천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영재업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별을 위한 교사 관찰·추천제 연수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사 관찰·추천제는 영재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각 분야 잠재력 있는 영재를 발굴하고 이를 근거로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선별시스템에서 영재교육대상자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영재교육대상자 선별에 공정성을 기하는 방안이다.

이번 연수는 영재교육대상자 판별과 교사관찰추천제의 이해를 주제로 영재의 정의와 판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영재교육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 착공...134억 들여 23년 5월 준공

### 지하 1층, 지상 4층... 휴식 라운지, 임산부 휴게, 사무실 11개

영천시청 본관 후면 동별관이 증(신)축 착공식을 갖고 2년여 공사에 들어갔다. 영천시는 6일 시청사 부지 내 동별관 증축 착공식을 갖고 23년 5월 완공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별관은 총사업비는 134억원으로 기존 별관에 연결하는 수평 증축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41.57㎡ 규모로 지난해 4월 설계 공모와 올해 6월 실시설계를 거쳐

이달에 착공해 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층별 시설로는 지하 1층에 지하주차장, 지상 1층 ~ 지상 4층은 1층에는 소통·휴식 공간인 오픈 라운지를 포함해 사무실 8개, 기타 사무실 3개, 소회의실, 임산부 휴게실, 직원 휴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영천시는 동별관이 완공되면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외부 시설에 분산돼 있는 부서들이 시청 내로 배



치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인의 업무 편의에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 과일 '사이소', '별빛촌장터' 온라인 영천과일축제

### 20% 특별할인, 12~ 24일까지 '사이소' 및 '별빛촌장터' 검색

영천시는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와 연계해 10/12~ 24일까지 13일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2021 영천과일 사인머스켓, 황금사과 축제'를 실시한다.

영천과일축제는 영천과일의 우수

성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다. 오프라인에서 과일 품평회, 직거래 장터, 과일 게임 등 다양하게 진행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해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 위주로 판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사이소'와 영천시 농특산물 쇼핑몰인 '별빛촌장터'를 통해 영천포도 사인머스켓과

황금사과 시나노골드를 20% 특별할인해 판매한다.

사인머스켓은 2kg(실속형)에 28,000원 하던 것을 22,400원에 판매하고, 같은 사인머스켓 2kg 프리미엄형은 당초 35,000원 하던 것을 28,000원에 판매하고 시나노골드(황금사과)는 실속형 3kg에 15,200원이다.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영국화원

전문장례식장

고급수의 관  
도우미 상복  
장의버스  
입관용품

# 99

만원

(054) 331-4444  
(영천영대병원 옆)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영락원

장례식장

관수의, 도우미, 상복  
장의버스, 입관용품

# 99

만원

24시간 상담가능 336-4444



# 이만희 의원, 국정감사기간 정부정책 돋보기 분석 등 '맹활약'

이만희 의원 지난 10월1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돋보기 분석으로 강도높게 실적을 비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당(국민의힘) 대표 간사다. 특히 농업 예산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간사) 및 예결산소위원장이기도 하다.

또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등 국내 실물 경제와 관련된 국민의힘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의 이번 국감 소식을 살펴본다.

## [이만희 의원] 국감 ① 농촌 인력지원 대책 사업 실패 외국인 파견근로 사실상 중단

코로나19로 농번기 농촌 인력난이 패닉에 빠진 가운데 올해 파견근로 시범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력 지원 대책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 중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농촌인력 추진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은 통계청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 일용근로자는 지난 17년 68,112명에서 지난해 48,353명으로 약 30% 감소했으며,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일용근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는 고용지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된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사업 목표 인원 1,000명 중 현재까지 경기 연천 22명, 강원 태백 12명을 비롯해 겨우 42명 참여,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참여 인원은 신청 인원 1,116명 중 실제 참여 인원은 202명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 것.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입국 외국인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확진되고, 해당 국가 입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그나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통해 총 732명의 외국인 농촌 인력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농촌은 농번기



이만희 의원

와 수확기에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패닉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풀이 한정적이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발농업 농가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은 사실상 농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 차례 농업인 인건비 보조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 [이만희 의원] 국감 ② 발전사업허가 지역 97% 부적합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10월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의원에 의해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안전 등에 대한 입지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이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중 어선밀집도, 어획량, 해상교통안전, 법정구역 등 입지선정에 있어 총 33개소 중 단 1개소(3%)만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공식화 후 공공과 민간주도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난립하면서 2021년 9월 기준 전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43개사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19개 사업이(44%) 모두 7.17 대책 발표 이후 1년2개월여 사이 속전속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해상풍력발전사업 세부현황(21.9월말 기준)을 보면 제주탐라 30MW, 영광북합 34.5MW, 군산실증 3MW, 제주월정실증 1.2호기 5MW, 서남해실증 60MW 등 가동중인 사업은 겨우 6개소 132.5MW 뿐이며, 나머지 추진중 97개소, 풍력발전사업허가 43개소로 조사됐다.

또 이만희 의원이 현재까지 구축된 입지정보도를 기반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33개 사업의(좌표정보 없는 10개사업 제외) 입지적정성을 의원실에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논의해 분석했더니 어선밀집도 기준, 어업활동 상위 20%에 해당하는 해역 및 어장구역, 어획량 기준

등 해상풍력입지로 적정하다고 판명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32개 사업은 모두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탈원전의 폐해를 덮기 위해 준비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해상풍력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면서, "입지적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남발된 해상풍력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만희 의원] 국감 ③ 임원-해수부 출신 전체 27% 기관장만 10명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10월1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기간 중 이 의원의 소관상임위 농해수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보직을 분석한 결과 해수부 출신 기관장이 총 10명으로 전체 59%를 차지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해피아가 살아있는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기관장을 포함하여 감사와 비상임이사 등 해수부 소속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해수부 출신도 전체 임원의 27%인 총 43명으로 어촌어항공단이나 국립해양과학관 같은 경우 임원의 절반을 해수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 기관장들이 책임경영을 할 전문성이 의심되는 등 해수부 퇴직자들이 퇴임 후 자리를 나눠먹기 위한 먹잇감 정도로 소관 공공기관 보직을 독식하고 있다"며 권력적폐 '해피아 부활'을 경고했다.

## [이만희 의원] 국감 ④ 포스트 해운재건 준비해야 경쟁력 강화 촉구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해운정책 미비점을 파악해 글로벌 해운트렌드에 발맞춘 포스트 해운재건 계획 필요성을 촉구했다. 정부의 해운정책이 실적만을 위한

선사들의 선박 확충이나 화물 확보 등 일차원적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세계적 해운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라는 주문이다.

이만희 의원의 촉구내용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이다. 해운물류 분야는 다량의 화물을 취급하고 여러 운송수단과 장비를 사용하는 업무 특성상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은(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해운물류산업에 최적의 자산으로 본 것이다. 이 의원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가 2018년 IBM과 손잡고 글로벌 물류 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를 출범시킨 이유를 제시하며 해운정책의 세계 트랜드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내 해운기업들이 디지털 변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이나 해운물류와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국내 해운기업들은 선박, 항만터미널, 내륙물류창고 등 물류 인프라가 부족해 해운-항만-내륙 간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서비스의 종류나 지역적 범위 한계 등으로 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국내 해운기업들이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통합물류 경쟁을 해운산업의 구조개선과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시점에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이만희 의원] 국감 ⑤ 농진청 연구예산 비중 0.6% 농진청 개발 발농업기계화 시급

이만희 의원은 농식품부감사에서 코로나19 및 고령화 등으로 농촌인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발농업기계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보급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중단된 이후 국내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에 빠졌다.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 인건비는 121.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농농업의 경영비가 0.9% 증가할 동안 채소를 비롯한 발농업은 최대 19.8%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농업 기계화율은 20년 기준 98.6%로 거의 모든 농작업의 기계화가 이뤄진 반면 발농업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하고, 더욱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파종·정식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각각 12.2%, 31.6%로 발농업기계화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1,643건의 연구과제 중 발농업기계화 관련 연구과제는 12건으로 0.7%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진청 R&D 예산 3조 4,553억원 중 발농업 기계화 예산은 218억원으로 연평균 0.6% 정도로 겨우 400농가당 1대 보급으로 투자대비 효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인력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며 국내 농업·농촌의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농촌진흥청이 내년부턴이라도 발농업 기계화율을 확실히 제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만희 의원] 국감 ⑥ 자연재난 아닌 인재 지적 추구장 650개 넘는 나무 잘라내

경북 포항 죽장면의 태풍피해 및 산사태(매일신문 9월 10일자 1면 등)가 무분별한 벌목 정책으로 인해 야기됐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그동안 포항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태풍피해가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에 가깝다는 주장에 힘이 더하고 있다. 포항 죽장면 일대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466ha의 산림을 벌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천·청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ha이며 이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된 산지에서 발생한 피해 면적은 13.1ha, 2등급 4.7ha로 조사됐다.

산사태 피해 복구 건수를 살펴봐도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총 24건이며, 산사태위험 1등급 16건·2등급 5건·3등급 2건·미구축 1건 등으로 집계돼 현재 벌목이 산사태 위험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와 맞물려 포항 죽장면 일대는 지난 10년간 산사태 피해가 두 차례에 걸쳐 총 0.4ha 발생했지만, 지난 8월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종전의 10배에 달하는 3.8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이 지속적으로 산사태 발생이 벌채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산사태 발생 지역주민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탄소중립계획보다 국민과 산림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산림청이 실시한 5ha 이상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 결과 총 2천145곳 중 벌령위반 45곳, 관리 미흡 469곳이 적발됐으나 5ha 미만 벌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 푸드플랜...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종합 전략

### 경북도 순화먹거리-보장먹거리-공공먹거리 28종에 856억 투자

영천시가 30일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천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0~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략 수립계획 일부다. 앞서 지난 9월24일 경북도의 이같은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후 6일 만이다.

이날 푸드플랜은 정부 과제는 물론 '지속 가능한 건강먹거리, 경북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라는 비전과, 3대 전략 과제를 담은 것이다.

영천시는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 가공,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 식생활, 영양,

폐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영천시만의 먹거리 통합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경상북도는 ▷공유하는 순환먹거리 ▷마음담은 보장먹거리 ▷상생하는 공공먹거리라는 3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28개 신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영천시는 지역 먹거리 실태조사, 정책 분석 및 과제 도출, 거버넌스 구성·운영, 영천시 푸드플랜 수립, 공공먹거리 지역 내 순환체계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 먹거리 관련 조례 제정,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순화먹거리 13종에 150억원, 보장



먹거리 7종에 82억원, 공공목고리분야 8종에 6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장지수 기자

## 기획 연재



김효정 기자



노계 박인로

## 노계 선생의 성장기 잘 전해지지 않아... 정규양, "명달여신(明達如神)하다"

### 대승음(칠언절구)... 선생의 어린시절 꾸밈없는 순수함

#### ◎10~20대 불우하게 보냈나?

박인로 선생의 아버지는 승의부위 종8품의 무반 벼슬 박석(朴碩)이며, 어머니는 잠봉주순신(朱舜臣)의 딸이다. 선대는 현달한 가문이었지만 점차 중앙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선대의 뿌리고 보자면 사족(士族)이지만 가정 형편은 궁핍했던 것으로 노계의 성장기는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1704년 정규양이 쓴 선생의 일대기인 행장(行狀)에 "명달여신(明達如神)하여 가르치지 않아도 자능통해(自能通解)했다"는 부분으로 보아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다는 것이다.

선생은 불우한 10대, 20대를 보낸 듯 하다. 10대에 부인 숙부인(淑夫人) 덕수 이씨(德水李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3남을 두니 박흥립(朴興立)과 장사랑(將仕郎) 박경립(朴敬立)·박효립(朴孝立)이다.

가난에 찌들려 제대로 글공부를 하지 못했다. 정철이나 신윤도 선생은 어릴때부터 유명한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뛰어난 작품들을 다수 언급하며 글공부에 대한 노력을 흔히 찾아 볼 수 있는데 반해 선생의 실제적인 삶은 시골에 살면서 여러 대에 걸쳐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양반으로 서른살이 되도록 그런 기록이 없다.

영천 도천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혼자 글을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13세에 지은 '대승음'은 세인을 놀래킬만하다.

대승음(낮잠을 깨우는 빠꾸기 소리를 들

으며 읊다)

오수빈경대승음(午睡頻驚戴勝吟)  
낮잠자다가 빠꾸기 울음에 자주 놀라니

여하편축아인심(如何偏促野人心)  
어찌하여 시골 사람 마음만 재촉하는가

제피낙양화옥각(啼彼洛陽花屋角)  
저 화려한 한양대궐집 모퉁이에서 울어

회인지유권경금(會人知有勸耕禽)  
발갈이를 권하는 새가 있음을 알려주오

대승음은 칠언절구의 한시로 선생의 어린시절 꾸밈없는 순수함을 잘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혹여 어린나이에 고된 말일이라도 도왔고 끝같은 낮잠을 청하는데 방해꾼이 있다면 어디론가 보내고 싶을 터인데 화려한 한양대궐집 부유한 양반들에게 발갈이 권하는 새가 있는 것을 알리라는 내용으로 13세때의 환경을 슬퍼한 것은 아닐까?

시는 질박(質朴)하고 서민적이어서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 혹여라도 늦봄부터 뜨거운 여름에 영천 북안 노계문학관을 방문한다면 인근에 자연을 벗삼은 빠꾸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대승음'을 더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기사는 노계문학관 제공'노계집' 및 향토 문화전자대전 자료 참고>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 10월 5일~15일까지 접수

영천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일환으로 '별별 인문학 농촌생활 캠프' 및 '지역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별별 인문학 농촌생활 캠프'는 기존 농활(농촌생활)을 탈바꿈하여 인문학과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인문학을 통한 청년과 농촌의 문화 교류 및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역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는 영천의 문화예술계 기획 인력 보급 및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제지를 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또는 고유번호 단체증 단체로 문화도시, 문화예술창작 등의 분야에 경험이 있는 단체다.

공고문은 10/4일~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접수기간은 10/5일~15일까지 영천시 문화예술과(영천시 시청로 16, 2층 문화예술과)에서 접수한다.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e-숲이 on다

# 2021

#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2021. 10. 18(월) - 20(수)

e-forestexpo2021.kr



비대면 온라인박람회



주최: 산림청 주관: Kofpi 한국수목원생리학회  
후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생리학회



# 영천시 행정대집행... 거대 쓰레기 산 누가 치우나

###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어디까지? 구상권 확보는? 폐기물처리업체 100곳↑

영천시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산이 세워진지 만 1년을 넘겼다. 영천시는 2019년 7월부터 폐기물처리대책본부(본부장 부시장)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최고 기구다.

영천시에 폐기물처리업체가 100곳이 넘다보니 자원순환과 소수의 인력으로는 관리사각지대 업체가 많다. 때문에 대부분 민원처리 하기에 사실상 역부족이다.

문제는 많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쓰레기를 받아 재활용 한다지만 쓰레기를 반입할때 돈이되고, 반출할때는 사실상 돈이되지 않는다.

때문에 많은 량의 쓰레기를 반입하려 노력하고, 반출할 곳이 없다보니 재활용으로 생산된 폐기물은 공장내 또는 후미진 부지에 방치하거

나 폐 공장을 임차해 쓰레기만 쌓고 먹튀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그래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화재는 자연발화가 명분대 방치되기 일쑤다.

대부분 사고 후의 처리는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 업자들의 먹튀에 가압류를 해봐야 경매로 선순위에 밀리고 근저당 등 예따른 채권(구상권)회수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지난해 영천시의회가 행정대집행시에 반드시 구상권 확보후에 집행해야 한다는게 예산승인 이유다.

지난해 8월 영천시의회가 제201회 임시회때 영천시 개정이라 사상 처음 행정대집행 예산을 승인했다. 당시 북안면 Y폐기물 업체에서 화재가 나면서 방치폐기물이 6천톤이 넘었



<사진 대창면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외부에 쌓아둔 수만톤의 쓰레기 산>

다. 여기에 영천시가 처음으로 방치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예산 33억3천만원을 투입했다. 겨우 가압류만한 채다.

앞서 해당 부지에는 이미 2017년에 12억원이 근저당 되어있다. 경매 처리 되더라도 영천시는 건질것이 없다.

두번째 행정대집행 역시 화재로 인한 업체다. 고경면 열병합발전소 자리다. 이곳은 2017년 8월 화재로 수천톤의 잔여물이 방치돼 주민 피해가 우려됐다. 때문에 영천시가 급한김에 먼저 1,600만원의 행정대집행을 선집행했지만 자연발화로 구상권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또 그 나머지에 대해 1차적으로 1억1천만원의 행정대집행을 한 상태다. 물론 이곳에도 앞서 수십억원의 근저당과 선순위 압류자가 있어 후순위 영천시 가압류는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다. 다행이 이곳은 약12억원으로 자체처리 후 나머지 구상권에 대해서도 영천시가 청구하면 곧바로 납부한다는 계획이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보인다.

때문에 향후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해줄 당시 미리 사고 발생시 구상권 확보를 조건부로 허가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2019년 사상 처음 영천시행정 대집행 예산을 승인할 당시 영천시는 의회에 사정을 했다. 당시 45억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세우고 승인받기 위해 해당 과장은 구상권 확보가 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성보박물관 업무협약...영천박물관 건립·운영 활성화

영천시가 조성계획 중인 영천박물관 운영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성보박물관(관장 돈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영천시는 영천박물관을 화룡동 134번지 일원에 부지 2만2,360㎡(6,763평), 건축면적 4,419㎡(1,336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은해사 성보박물관은 은해사 경내 건평 150여평으로 전면 9칸의 전통 목조건물로 2003년 준공해 2005년 개관 후 과불탱화보물(제1270호), 서운암 독성도(1877년), 백조당(1906년), 영파당, 설하

당, 극락전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쇠북 등 1,405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술연구 진흥 및 상호 공동 연구, 전시 및 연구를 위한 자료 대여 등 협조, 학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은해사의 우수한 불교문화유산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영천박물관 건립 기반 마련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박물관 건립 준비 과정에서 은해사 성보박물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 풀뿌리 평생학습동아리 선발

영천시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되면서 지난9월 3일~8일까지 모집한 풀뿌리 학습동아리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영천시 평생학습관은 지난 달 24일 모집한 대상자 대면심사를 거쳐 이 달 5일 오후 7시에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풀뿌리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동아리별로 선발된 18개 팀이다. 10월부터 약3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100만원의 보조금과 일부의 자부담으로 사업 목적인 시민들의 배움 열기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풀뿌리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동일 주제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에 강사비, 교재비, 행사운영비 등 필수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5명 이상의 성인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동아리(팀) 모임이다.

영천시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모임을 발굴·지원하여 평생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소외계층의 균등한 학습 기회를 위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 영천 경로당 341개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영천시와 서라벌도시가스는 영천시 관내 경로당에 CO(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사업을 실시했다고 영천시가 6일 밝혔다.

통상 경로당 등에는 보일러 취급 및 관리가 취약해 상시 가스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영천시는 도시가스가 없는 경로당 341개소중 291개소에 CO경보기를 전액 시비로 보급하고, 도시가스가 있는 50개소 경로당에는 서라벌도시가스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한다.

# 청도반시축제, 17일까지 열흘간 온·오프라인 병행

경북 청도군 농민들의 주소득 명품농산물 '청도반시' 축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청도천 둔치에서 개최된다.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달 23일 이번 축제는 청도천 둔치와 청도읍성, 청도 소싸움경기장 세곳에서 분산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도반시는 씨없는 감으로 청도군 농가 주소득 특산물이다. 지난해에는 경매장 수취가격 역대 최고가를 기록해 호황을 누렸고, 올 초에는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식중독균인 노로바이러스에 99.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돼 청도군의 효자 농산물로 입증되고 있다.

이번 축제를 군은 코로나19를 의식해 비대면과 드라이브스루로 개최한다. 또 개막식과 공연 관람도

자동차 내에서 관람하도록 하고, 청도반시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자(40%)가 청도반시 드라이브스루 판매장에서 '청도반시'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60%)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축제장에서는 개막식, 반시콘서트, 반시시네마, 가을음악회 등 비대면으로 현장공연을 관람하며, 청도읍성 일원에 '반시터널', '감물염색천 터널' 등 포토존을 꾸며 관광객을 맞는다.

반면 온라인 축제는 청도반시 라이브커머스 특판행사 와 뽐뽐(FunFun)한 반시쿠킹 클래스, 감잡았스 도전 청도골든벨, 현장출동 감따라 흥따라, 이색반시가요제, 반시Song 댄스 챌린지 등 청도반시를 주제로 한 온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청도반시 홍보에 중점을 둔다

# '영천목요장터' 시간·장소 변경

### 우로지생태공원 분수대 광장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

영천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영천목요장터'가 장소와 시간이 변경된다.

종전 한의마을 주차장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하던 것을 오는 목요일(10월7일)부터 우로지 생태공원 분수대 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된다.

영천시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접

근성이 더 좋고 보다 많은 방문객을 맞이해 농가 상생을 위해 홍보·판매의 장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영천 목요장터는 지난 6월 24일을 한의마을 주차장에서 처음 개장해 매주 목요일마다 34개 이상 농가가 참여해 그동안 11번 운영했으며 3천여 명이 방문했다고 영천시가 전했다.

판매 품목은 과일류·채소류 등 제철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이며, 유통마진을 뺀 착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 영천전자고, 軍 특성화 학생 선발 학부모 설명회

영천전자고등학교(교장 김동환)는 2021. 10. 5.(화) 2022학년도 군(軍) 특성화 학생 선발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가졌다.

전자고는 지난해 전문기술 부사관 양성 군(軍) 특성화고(해병 정보통신 분야)로 선정돼 올해 3월부터 해병 정

보통신 군 특성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김동환교장은 “군(軍) 특성화를 통해 졸업 후 부사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특성화고의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정

국정감사에서 정부정책 질타



이만희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소관부처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돋보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간사) 및 예결산소위원장으로 농업 예산 확보와 농업인 소득안정 및 권익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영주 이산서원 복설 준공식 참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오전 영주 이산면 석포리에서 열린 이산서원 복설 준공식과 봉안고유제에 참석했다.

이번에 복원된 이산서원은 1558년(명종13)에 창건, 1574년(선조7)에 사액, 1871년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된 이후 150년 만이다. 이산서원은 우리나라 서원 규약의 효시로서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최기문 영천시장은 13일 영천종합복지센터 강당에서 개최된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 모범노인 등 2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영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어르신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르신들께서 나눠주시는 경륜과 지혜로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월7일까지 '꿈1기~4기 1박2일 가족캠프'



이승율 청도군 군수는 오는 11월 7일까지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이용한 '꿈1기~꿈4기 1박2일 가족캠프 청도! 꿈 너머 DREAM!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숲속 카라반에서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심신 회복과 이색 잠자리 체험, 안전한 비대면 미션 수행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한돈협시지부, 영천 육상 꿈나무 6명에 240만원

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는 지난 6일 영천시청에서 최기문 영천시장, 박봉규 영천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육상선수들 6명에게 후원 장학증서를 전달했다.<사진>

이번 후원은 영천시체육회가 지역 육상 유망주 배성준(영동고1), 양경준(금호중3), 김한별(영동중3), 안희연(성남여중3), 김은선(성남여중2), 김은정(청통초6) 등 총 6명의 선수를 한돈협회에 추천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추천으로 한돈협회 영천시지부(지부장 권호산)는 이들 선수들에게 매월 10만원씩 개인의 통장으로 2년간 각각 240만원의 장학 후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영천시장학회를 통하지 않은 별도 개별 후원이다.

이날 전달식 기념촬영이 체육회와 한돈협

## 권호산 지부장, "영천 빛내는 세계적 선수로 성장해 달라"



회 사무실이 아닌 영천시청(최기문 시장)에서 이뤄진 것은 "한돈협회와 영천시체육회가 선수들의 사기차원이었다"고 권 지부장이 전했다.

8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돈협회(영천시지부)는 2010년부터 해마다 500만원의 장

학금을 기탁해 누계 기탁금 4,05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권호산 지부장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육상 꿈나무들이 영천을 빛내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영천시협의회 제20기 한세현 회장 연임

## 57명 자문위원으로 구성 최기문 시장, 위촉장 전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영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0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했다.

1981년에 출범한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 현 문재인 대통령 범정 자문기관이다.

이날 평통은 제20기 협의회장으로 제19기 한세현 협의회장이 연임됐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대행기관장인 최기문 영천시장이 제20기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했다.

5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앞으로 2년간 다양한 통일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의회, 올해 임시회 마지막 회기 제219회 개최

##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 간 일정 2022년도 업무 보고 등 안건 제출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 간의 일정으로 제21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비롯해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 부서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2일 첫째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19일까지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20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2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

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 승인과 여러 안건 처리를 끝으로 산회하게 된다.

조영제 의장은 1일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시정에 대한 금년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검토하며 시정의 총체적인 진행방향을 다루게 된다."며, "특히, 내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시정발전의 방향기가 제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효율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꼼꼼히 검토해주시고, 의사결정에 있어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출연진

소프라노 신미경 이화영 이윤경 레너 김완준 신현욱  
바리톤 박정환 김만수 펠리체앙상블 피아노 장윤영

# 2021.11.9. 화 7:00pm

## 영천시민회관

(경북 영천시 시청로 17 T. 054.330.6680)

주최 | 영천시민가을음악회추진회 주관 | 재영계명대학교 영천동문회,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동문회

후원 | 경상북도 STAR 영천시 시민신문사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다주택자 양도 대신 증여 늘어  
국세청, 부담부증여 관리 철저

부담부증여란? 물건에 포함된 채무도 함께 증여,  
사후 관리 대상  
국세청-부담부증여 채무상환 소명서 확인  
증여추정 규정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양도 대신 증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은행 채무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낮출 편법으로 채무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증여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와 국세청 관리 유형을 알아본다.

부담부증여란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존재하는 채무를 포함하여 재산과 같이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은행채무나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을 순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면 전산망에 입력된 채무에 대해서 만기일자가 도래한 경우에 납세자에게 부채사후관리에 대한 소명서를 보내어 채무상환 여부를 확인한다. 채무를 상환했다면 무슨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금출처 없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제3자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서면분석을 통해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또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만기일자, 채무액 또는 모든 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하여 사후관리를 하므로 자금출처 없는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받고 가산세도 물지 않으려면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해야 할 것이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특조법'소유권 이전해 간 땅 찾을 수 있을까?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  
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은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문** 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하는지?

**답** 판례에 의하면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판례는 무허가건물을 자기가 축조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례로 보이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받아 소유하다가 대지의 소유권만이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위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귀하는 위 건물을 귀하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여乙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乙이 대지 사용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법원에 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민법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경우 30년, ② 그 외의 건물의 경우 15년, 그리고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위 ①,②에 정한 최단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 주시면 성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 책! 책! 책! ]

젊은 청춘들이 꼭 읽어야 할 '2022 정권교체 플랜'

내년 대선에서 자유우파로의 정권교체 가능한가?  
좌파 약점 잘 아는 YS가 무섭다.  
정치판 롤러코스트 사나이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2022, 정권교체 플랜』은 고성국 박사·이정현 전 국회의원·서정욱 변호사 3인의 대담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와 역량을 진단하고, 내년 대선에서 자유우파의 정권교체를 실현할 방안과 전망을 제시한 책이다.

4부로 구성된 대담집은 1부 '정권교체, 어떻게 가능한가', 2부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 3부 정세 전망과 캐치올 전략, 4부 권력비리 청산과 정권심판 방향을 논한 240쪽짜리 일반인들의 정치방향 지침서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중대 선거다. 이 책은 내년 선거에서 우파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있는가, 있다면 과연 어떤 전략이 있는지 이들 3인의 정권교체 해법이 수록됐다. 자유우파들은 물론 독자들도 각자의 시각으로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과 극복방안,' '정세 전망과 캐치올 전략,' 그리고 '권력비리 청산과 정권심판방향'을 스스로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대선 전에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한다.

제1부에는 대선 승리 가능한가?, 좌파와 우파 무엇이 다른가? 좌파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

YS가 무섭다. 좌파 후보와 혁명적 수단들, 허수아비 문재인과 386운동권의 실체, 유권자 인식 변화와 지지층 확보 전략, 좌파의 갈라치기에 맞선 통합 전략, 윤석열 X파일 실체와 네거티브 대응, 자유우파진영의 역할, 경선 컷오프 방식과 인재의 활용, 부정선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 지방



선출직들의 정치해석 공금증도 담겨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모교인 동국대 석좌교수다. 자신을 '밭아도 다시 일어나는 질경이'라고도 하고, '모진 바닷바람을 맞아도 돌틈에서 기어코 꽃을 피우는 海菊'으로 불리고 싶다고 한다. 3선 국회의원, 당 최고위원 2번에, 당 대표와 청와대 정무, 홍보 수석을 지냈지만 정치판에서는 롤러코스트를 탄 사나이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법고시(38회), 행정고시(40회, 국제통상직)에 합격한 이후 영남대 로스쿨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K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에너지관리공단 이사과 기획재정부, 한국전력,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

특히 고성국 박사는 국내 최정상급 정치학·정치 평론가다. 현재 개인 유튜브 채널 [고성국TV]를 운영하고 있으며, TV조선 고정 패널로 활동 중이다. 1990년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정치 평론가로 입지를 굳혀 왔다. KBS [추적 60분], CBS [시사자키-오늘과 내일], 교통방송 [열린 아침 고성국입니다],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녁], TV조선 [고성국 라이브쇼] 등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다. 대표 저서 『10대와 통하는 정치학』, 『박근혜 스타일 2012』, 『고성국의 정치in』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치 평론 서적이 있다.

정치는 좌·우 진영논리다. 고성국 박사는 진보는 개혁과 혁신, 보수는 수구꼴통으로 치부해 좌파들이 씌운 프레임으로 좌파속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고, 보수속에도 진보와 보수가 존재한다고 바로잡는다.

좌·우의 분석,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분석해 우파와 좌파의 기준을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나 대한민국과 싸우는 사람들이나'라고 말하는 저자들은 2022년 대선이 단순한 여야의 경쟁이 아닌 대한민국의 명운을 두고 싸우는 체제전쟁이라 말한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주)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할 말을 하는 영천신문』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구독료  
정론(正論)·정도(正道)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가겠습니다  
▶ 구독료: 월 5,000원 / 년 6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 구독제보: TEL 332-2400 FAX 335-6600



# 2021년도 노계문학 전국백일장 올해도 계속 연다

영천 출생의 위대한 무인이자 문인 가객인 노계 박인으로 선생의 삶과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국적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2019년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4회째 개최된다.

원래 백일장이란 행사의 어원적 뜻은 조선조 때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유생들을 모아 시문(詩文) 짓는 것을 겨루던 일을 가리키는 뜻이며, 그 이름의 유래가 두 가지로 전한다. 하나는 뜻 맞는 사람들끼리 달밤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시재(詩才)를 견주어보는 망월장(望月場)과 대조적인 뜻으로 대낮(白日)에 시재를 겨룬다 하여 생겨난 말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유생들을 모아놓고 시재를 겨루던 장소(場)를 가리키던 말이라고 한다.

오늘날은 전문 직업작가가 아닌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모여 글짓기 대회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나 지금의 백일장의 행사취지에 맞게 2019년도 1회 대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노계문학관에 모여 현장에서 각기 문학적 재능을 겨룰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 온 나라를 덮친 COVID19(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현장에서 치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공모전행사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행사방식으로는 학생부문에서 부모가 대신 창작하는 代作의 우려가 있어서 지역내 뜻있는 교육계인사 들로부터의 외면을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대면 공모전으로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올해는 학교별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교사의 지도하에 창작을 유도함으로써 代作의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하였다.

작년에 이어서 우수작이 많은 학교를 선발하여 지도교사상(경북교육감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특히, COVID19(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문학창작을 통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현대시의 시제에 "COVID19(코로나-19)"를 포함시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생활상의 불편함, 부모 자식간, 가족, 친지간 만남의 제약등을 소재로 삼아 창작을 하면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사단법인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관계자가 전했다.

행사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사업회 홈페이지 <http://noge.or.kr> 를 참조하면 된다.



2020년도 백일장 대상 수상자 ▷일반부 : 경북영천 정동재, ▷학생부 : 경기안양 최용희



2019년도 백일장 대상 수상자 ▷일반부 : 경북김천 박하성, ▷학생부 : 세종 강민지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2021년도 노계문학 전국 백일장대회

### 2021년 제4회 노계문학 전국 백일장대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비대면  
공모전

#### 1. 취지

영천 출생의 위대한 무인이자 문인 가객인 노계 박인으로 선생의 삶과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전국적으로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타 지역에 노계 박인로의 존재가치 및 위상을 재조명함.  
나. 백일장 대회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노계선생을 재평가하는 계기.  
다. 영천이라는 터전에 노계의 연관관계의 필연성을 주지.  
라. 가사문학에 대한 영천지역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올해 대회는 코로나-19(COVID-19) 관계로 참가신청서 및 창작 작품을 아래 일정에 따라 비대면(우편, e-mail)으로 동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행사일정

- 가. 참가신청 및 작품 제출
  - (1) 비대면참가(작품제출)일정 : 2021년 10월 4일(월) ~ 2021년 11월 19일(금)
  - (가) 우편접수 : 2021년 11월 19일자 우체국소인까지 유효
  - (나) e-mail접수 : 2021년 11월 21일(일) 24:00시한
  - (다) 글제(詩題) : 하단참조
- (2) 참가요령
  - (가) 참가서식
    - 우리 사업회 홈페이지(<http://noge.or.kr>⇒알림⇒행사공지)에서 다운로드
    - 1) 참가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포함) 1부.
    - 2) 작품(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된 원고지 사용) 1부.
    - 3)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작품 제출일 기준 학생증, 재학증명서등 재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생이 아닌 경우 참여 불가)
    - (수상작 대학입학 사정 등 근거로 삼고자 함)
    - ※ 학교별 단체응모인 경우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 명의의 참가확인서로 3)항 대체가능합니다. (양식별도)
  - (나) 제출처
    - 1) 우편주소  
(우)38892 / 경북 영천시 금안로 44-1, 2층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 2) 대표e-mail : [yh8119@hanmail.net](mailto:yh8119@hanmail.net) 또는 [korea0x5812@nate.com](mailto:korea0x5812@nate.com)
    - 나. 작품심사 : 2021년 11월 24일 ~ 26일 / 당 사업회 사무실

다. 입상작 발표 : 2021년 12월 3일(금) / 사업회 홈페이지게시 및 개별통보  
라. 시상식 : 2021년 12월 10일(금) 14:00 / 노계문학관.도계서원  
※ 코로나-19등의 사정에 따라 시상식 행사일정/장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참가대상 / 부문

가. 대학 일반부 : 가사, 한시, 시조, 현대시(운문,산문,수필) / 4개 부문 한정  
나. 초·중·고 학생부 : 가사, 시조, 현대시(운문,산문,수필) / 3개 부문 한정  
※ 학생부 응모시 代作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한 작품창작을 권장하며 지도교사상을 신설하였으니 학교단체별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별 부문중복참가 가능 (단, 1인 2개 부문 한정, 시상은 1개부문만 선정)  
예) 한시+시조, 시조+현대시, 가사+시조등

#### 4. 백일장(공모전) 시제(詩題)

- 가. 일반 대학부 (⇒분야별 주제로 창작)
  - (1) 가사 : - 도계서원을 찾아서 - 발갈이 - 노계곡
  - (2) 시조 : - 갈대 - 백일홍 - 가족
  - (3) 한시 : - 追慕 朴仁老先生 忠孝精神 (추모 노계박인로선생 충효정신)  
- 운자 : 仁 親 ○ 人 ○ 神 ○ 春 (인친인신춘)
  - (4) 현대시 : - COVID19 (코로나19) - 가족 - 길
- 나. 학생부(초·중·고) (⇒분야별 주제로 창작)
  - (1) 가사 : - 할머니 - 형제 - 인연
  - (2) 시조 : - 山水自然(산수자연) 및 환경(기후변화) - 감 - 흥시
  - (3) 현대시 : - COVID19 (코로나19) - 용서 - 꿈

#### 5. 작품제출관련 참고사항 : 홈페이지 참조

#### 6. 시상내역

가. 대학 일반부 : 총 1,000만원(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 입선상)  
나. 학생부(초·중·고) : 총 360만원(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 입선상)  
다. 지도교사상 : 경상북도 교육감상 / 2명 / 시상금 각 20만원  
※ 학교단위 다수 수상학교 교사 선발 시상



■ 주최·주관  
사단법인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 후원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한국문인협회, 영천문화원, 울산문화원, 성균관대학교, 단국대학교, 경일대학교, (사)신라오릉보존회(박씨대종친회), 조양시사, 박약회, 조선일보, 매일신문(대구), 송덕전신문, 한빛신문, 영천신문

#### 기타문의처

사무국장 : 010-3259-0010  
재무이사 : 010-5177-5332

홈페이지 주소 : <http://noge.or.kr>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Society for the Commemoration of Nogye, Park In Ro